

REPORT

수강과목 mjc 학습동아리 2주차
선택학과 항공서비스학과
전 공 정보통신공학과
학 년 1학년
학 번 2021261026
이 름 박상원
제출일자 2021.10.13



그럼 이제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보통신공학과에 2021학번 박상원이라고 합니다.
요번 주차는 계획상 어문교육학부인데 그중 글로벌비즈니스 학부가 눈에 띄어서
글로벌비즈니스학부중 제일 눈에 띄는 항공서비스학과를 탐구대상으로
택하였습니다.

인터넷 서칭 결과

우선 승무원은 운항승무원과 객실 승무원으로 나뉘다고합니다.
운항승무원(조종사)을 전문적으로 양성하는 학과로서 많은 인기를 끌고있는 학과중
하나입니다.

항공운항학과와 항공운항과를 혼동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엄연히 다른
학과입니다. 항공운항학과는 조종사를 양성하는 학과이고, 항공운항과는 객실
승무원을 양성하는 학과입니다.

항공운항과는 남초인 운항승무원과 달리 여초입니다.
우리학교에서도 올해부터 신설된 학과라고 들었는데 아 명전이 아주 잘한일이
아닐까 싶습니다항 (제복입은 사람들을 가까이서 볼수 있어서 신기하더군요)

어머니가 승무원일을 해보셔서 누차 말하신 부분이 있는데
승무원의 주 업무는 서비스가 아니라 안전입니다.
항공 여행에 있어서 중요한 것도 안전이죠.

목적지에 도달하는데 가장 빠른 운송수단이 항공기이지만 하늘을 나는 만큼
위험성도 크다할 수 있습니다. 물론 위험한 만큼 안전에 심혈을 기울기 때문에
교통수단 중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항공기는 이착륙하는 기간이 가장 중요한 민감한 순간이라고 합니다. 만약 이 순간
불시착하게 된다면 승객을 안전하게 탈출시키는 역할은 객실승무원이 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객실승무원을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서비스 태도 등 예절 부문에
관한 것 이상으로 안전,비상탈출에 대한 훈련의 비중이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훈련이 힘들고 고되어 이를 이기지 못하고 탈락하는 경우도 있을 정도입니다.

비행기에 탑승하는 객실승무원의 수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법적으로 객실승무원은 항공기 장착 좌석 50개당 한명씩 탑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승객이 적어도 탑승 수는 법적 규정이하로는 줄일 수 없습니다.

예전 IMF 때 경제 여파로 해외 여행객이 줄어 B747 항공편에 탑승 객 수가 10명 내외였던 적도 있었습니다.

(747사진)

객실승무원 수가 승객 수보다 많을 정도였습니다. 승객을 일대일로 서비스해도 좋을 정도라는 우스개 소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보잉 747은 거의 두 번째로 큰 항공기다 보니 객실 승무원은 최소 8명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근의 항공여행은 여러 가지 서비스가 첨가되면서 객실 승무원은 더욱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기내식 서비스는 물론 갖가지 부가 서비스는 안전 기준을 지키는 기본 수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클래스별 구분해 운영을 하다보니 상위 클래스 전담하는 승무원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장거리 노선에는 20명 내외로 승무원이 탑승한다고 합니다.~~

객실승무원이 여러 일을 하는 것은 맞으나

항공객실승무원은 항공종사자가 아닙니다. 항공종사자는 조종사, 항공교통관제사, 운항관리사, 항공정비사, 항공기관사 등 **항공기를 직접 만지는 직종만** 해당됩니다.따라서 항공종사자에게 의무되는 법률도 피해갑니다.

항공기 객실 승무원과는 달리 열차 객실 승무원은 철도안전법에 따라 여객승무원으로 기관사, 관제사와 동일하게 분류됩니다.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되며, 혈중알콜농도 0.02%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들에게는 승무원 제복을 입는 순간, 열차 내 식음료 카트에 손대는 순간부터 음주운전이라고 합니다

항공사고율이 높았던 90년대까지만 해도 상당히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대한항공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대형 항공사들은 순직자가 많았고 지금보다 스튜어디스가 더 인정받는 직업이었는데도 스튜어디스가 되겠다는 딸을 말리는 부모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더 알아볼 수 있었던 얘기는 많지만 발표 시간상 여기까지하도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